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_ 약본

쫓카파 대사 지음

무량한 선함에서 태어난 몸,
한량없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말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갖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위업 받들어
무량한 정도에 자재로이 나투시고
더없이 넓고 청정한 세상에 나투신 부처님의 아들,
미륵 보살과 문수 보살께 정례합니다.

심오하기 그지없는 반야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며, 세상을 장엄하여
삼계에 명성을 떨친
용수 보살과 무착 보살께 정례합니다.

대승의 시조인 두 분이 전한
심오한 견해와 광대한 실천의 길을
왜곡 없이 완벽한 핵심만 뽑은 이
정법의 보고, 아티샤께 정례합니다.

무량한 가르침을 보는 눈
선한 해탈로 나아가는 최상의 문
자비로운 방편을 지혜롭게 행하여
빛을 밝히는 스승들께 정례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자 가운데
가장 드높은 깃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수 보살과 무착 보살이
올바르게 전한 깨달음의 차제

중생의 바람을 모두 채워 주는
보배로운 여의주의 주인과 같으며
수천 가지 선한 가르침이 흘러든
수승한 선설의 바다와 같다.

모든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것을 알아
모든 말씀을 가르침으로 되새기고
부처님의 의중을 쉬이 파악하니
중죄의 벼랑 끝에서도 보호받는다.

많은 선한 이들이 의지한 상중하
단계별로 최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의 차제
인도와 티베트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

모든 설법의 핵심을 모으고 모은
이 법을 한 번 말하고 들을 지라도
말하고 듣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믿고
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

금생과 내생의 인연을 짓는
올바른 바탕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올바른 스승들을
지극한 마음과 행동으로 의지하는 것.

잘 살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스승의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으로 옮겨 스승을 기쁘게 하라.
수행자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여 이와 같이 정진하라.

모든 걸 갖춘 인간의 몸은 여의주보다 귀하며
다시 만나기 어렵고, 한 번 뿐이며
마주하기 어렵고 쉽게 사라지는 번개와 같으니
이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라.

세간의 모든 일들은 빈 껍질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음을 알아
밤낮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죽은 뒤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제할 삼보 전에
간절하고 굳은 신심 일으켜
삼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기 위해 흑백의 인과를 잘 구분하여
버리고 지닐 것을 분명히 하라.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수승한 도를 이루기 위한 원만한 토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성취를 할 수 없으니
원만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인과를 빠짐없이 배우라.
신구의 삼업이 악업의 악취로 가득한 자는

악업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니
항상 악업을 제거하는 네 가지 힘에 의지하라.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고통의 본질을 사유하지 않으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고통의 원인을 사유하지 않으면
윤회의 뿌리를 끊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

윤회를 혐오하여 탈피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무엇이 윤회하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발심은 대승 수행의 기둥이고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며 근간이라
연금액과 같은 두 가지 자량과
광대한 선업을 불러모으는 복덕의 보물이다.

보살은 이를 알고
보배 같은 이 마음을 가슴에 품으셨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보시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처럼
인색이라는 매듭을 잘라버리는 최상의 무기.
보시를 하며 좌절하지 않는 보살의 용기는
널리 존경받을 명예로움.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알아
몸과 재물과 선업을 남김없이 베푸는 선한 길을 택한다.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지계는 죄의 허물을 씻어 내리는 청정수처럼
번뇌의 열병을 제거하는 청량한 달빛.
중생들 사이에 있어도 위험 있는 수미산처럼
지계의 힘은 허물없이 모든 중생을 불러 모은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알아
바르게 지닌 계율을 눈과 같이 보호한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인욕은 보살에게 최고의 장엄
번뇌를 굴복시키는 고행의 정점,
성냄이라는 독사를 겨루는 금시조,
흥기 같은 거친 말을 막아 내는 튼튼한 갑옷이다.

이와 같이 알아 가장 뛰어난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여러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라.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후퇴 없는 견고한 정진의 갑옷을 입으면
가르침과 수행이 상현달처럼 차올라
일체의 행이 의미를 지니니
시작한 모든 일을 마침내 원하는 대로 성취하리라.

보살들은 이와 같이 알아
모든 게으름을 없애는 위대한 정진을 해 나간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선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왕과 같아
선정에 들면 미동도 없는 산과 같고
깨어나면 모든 선업을 행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려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

위대한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알아
산란이라는 적을 무찌르고 삼매에 항시 의지한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지혜는 심오한 진리를 보는 눈,
생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길,
모든 법이 찬탄하는 공덕의 보고,
어리석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수승한 등불이다.

해탈을 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알아
이 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일념 삼매로는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고
삼매를 여윈 지혜만으로는
아무리 탐색해도 번뇌는 물러나지 않는다.

실상을 어긋남 없이 아는 이 지혜가
흔들림 없는 삼매(사마타)의 말에 올라
양변을 여윈 중도의 날카로운 검을 휘둘러
실재한다고 집착한 모든 대상을 자른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심오한 지혜로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움을 키워 나가라.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일념을 수습해 삼매에 이르는 것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실히 고찰하는 분별지마저도
흔들림 없이 실상에 견고하게 머무는

삼매에서 생겨남을 보아
지관쌍수의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혼하지 않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선정에 들면 허공과 같은 공성을
선정에서 깨면 환영과 같은 공성을 수습하고
지혜와 방편을 함께 닦아
보살행으로 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을 찬탄하셨다.

이와 같이 알아 한쪽 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이들의 내력이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수승한 대승의 현교와 밀교의
구비해야 할 도를 모두 잘 닦아
지혜로운 인도자인
보호존께 의지하여 밀법의 큰 바다에 들어간다.

밀법에 들어선 뒤에는 완전한 비결구전에 의지하여
인간의 몸을 가치롭게 활용해야 한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자신의 마음에 바른 습을 들이고
인연 있는 타인을 돕기 위해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가르침이 담긴 수행의 핵심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한 이 선업의 결과로

모든 중생이 청정한 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발원합니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